

UC Berkeley 2013 Spring/Summer 교환학생 후기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11학번 유예원

안녕하세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로 2013 Spring semester와 Summer session A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온 산업경영공학과 11학번 유예원입니다. 1월 중순에 도착해서 벌써 Berkeley에서 생활한 지 5개월이 되었고, Berkeley에서 있을 시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더니 아쉬움도 남고, 한국에 돌아갈 생각에 기쁘기도 하네요. 제가 단기유학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많아서, 다음에 가시는 단기유학생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유학 준비

단기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이 후기를 읽으실 텐데, 단기유학 가기 전에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어떻게 해야 단기유학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선 단기유학에 지원하기 전에 가장 해야 할 것은 '대학교 선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영어권 대학, 비영어권 대학으로 나눌 수 있고, 학비가 지원되는 대학과 지원되지 않는 대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권 대학과 비영어권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IBT TOEFL 성적입니다. 영어권 대학의 대부분은 IBT TOEFL 성적을 기본적으로 88점 이상 요구하고 있고,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거의 매년 동일하니 지난 학기 지원 자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영어권 대학은 기관토폴(ITP TOEFL)이나 아라 영어등급제로 2등급이상이면 지원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P TOEFL은 2주 후에 성적이 게시되기 때문에 그리 급하게 준비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영어권 대학을 지원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단기유학 지원은 단기유학 가는 학기의 6~7개월 전에 하게 됩니다.(2014년 봄 학기에 갈 경우, 2013년 여름방학에/2014년 가을 학기에 갈 경우, 2013년 겨울방학에/단기유학 지원은 2학년 2학기부터 할 수 있음. 2학년 2학기 지원 후 3학년 1학기 단기유학시작) 그래서 TOEFL성적과 교수님 추천서, 지원서 등이 방학 전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교수님 추천서는 교수님이 바빠신 경우가 많으니 2~3주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부탁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TOEFL 성적입니다. 사실 TOEFL 공부가 유학에 가서 직접 생활할 때는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봐서 해치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보면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TOEFL 공부는, 만약 IBT TOEFL을 보신 적이 있다면 혼자 준비하더라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신 적이 있으나 가물가물하거나,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방학 때 1~2개월 정도만 길잡이가 되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는 사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말이 많지만, 어디를 가나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굳이 비싼 돈 내고, 멀리까지 다니실 필요 없고, 각자 집에서 가까운 곳을 다니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토플성적 따다는 생각이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지방에도 유명한 학원들은 branch가 많으니 거기를 다니셔도 좋습니다!)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바쁘니, 굳이 학기 내내 토플을 몰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겨울방학에 2개월 정도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바로 3월에 접수가 지원가능 성적이 나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지만, 기본 커트점수를 넘었으면 더 시험을 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IBT TOEFL의 Paper transcript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성적이 발송될 때까지는 시험 친 후로 넉넉히 6주 정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ETS의 측의 실수나, 기계 오작동으로 시험을 본 뒤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무효처리, 성적표 발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비가 지원되는 학교와 지원되지 않는 학교의 차이입니다. 우선, 단기유학생으로 선발되면 한화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단기유학을 갈 때에도 POSTECH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등록금도 내고(물론, 이공계장학금이나 지곡장학금을 받아서 안 내긴 하지만^^), 단기유학을 가는 학교의 등록금도 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원가능학교 목록에 보면, '수업료 본인 부담'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경우는 단기유학 가는 학교의 등록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숙사비 포함) 그러나 그 외의 학교는 우리학교만 등록하면 그 학교의 등록금은 면제됩니다. (저는 UC Berkeley를 꼭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고 나니 학비와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UC Berkeley는 학기 중에는 우리 학교학생이 정식 교환학생이 아니므로(UC Extension office의 Concurrent enrollment student) 학비를 매우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1학절(unit)당 약 680불, 최소 들어야하는 학절 12unit)) 비용을 줄이고 싶으신 학생은 꼭 학비가 지원되는 학교에 apply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학교도 있고, 한 학기만 되는 학교도 있는데, 저는 원래 1년으로 유학을 왔다가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아서, 한 학기와 Summer session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단기유학 합격 후

가고자 하는 학교에 붙었다고 좋아했던 시간은 딱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ㅠ. UCB의 분학기기는 1월 중순 시작이라(겨울학기기는 8월 중순) 준비기간이 짧고 준비할 것은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붙으신 분들도 붙으신 후에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 VISA 및 항공권

UCB는 F-1 VISA가 필요합니다. (Summer session으로 가시는 분들은 F-1비자가 필요 없음)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고 절차에 따라 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포항 시내에 있는 유학네트(오락실 근처 우체국 위)라는 곳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VISA 신청은 물론이고, 항공권 예약까지 다 해주시고, 유학가기 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서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Orientation도 해주시고 자료까지 만들어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United항공 직항 편도로 80만원에 했습니다. 아라 더 빨리하고, 왕복으로 하면 더 저렴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복으로 하게 되었다가, 혹시 더 여행을 하고 싶다가나, 더 빨리 돌아오게 될 경우 수수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잘 고민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날을 정하는 오픈티켓도 있음)

2-2. 수강신청

이것은 각 학교마다 다를 테니, UCB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UCB 단기유학생의 경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식 교환학생이 아니라 Concurrent enrollment student이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UCB 학생이 받는 Cal ID Card(Main library 출입할 때 필요함, Berkeley 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ticker가 붙어있음, 학교 체육관을 한 학기 동안 \$10에 이용(없으면 한 학기 \$140볼에 이용))을 받지 못하고, 수강신청을 할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니라, UC Extension office에 찾아가서 직접 돈을 내고 사인을 받아야 수강인정이 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Haas business school과 같은 특정 학부나 특정 강좌는 아예 Concurrent enrollment student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할 때 이 점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POSTECH에서 임시수강신청을 할 때는, schedule.berkeley.edu에 들어가서 printable version을 열어서 목록을 꼭 읽어본 다음에 관심 있는 과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UCB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관심있는 과목의 CCN을 확인하여 concurrent enrollment site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어떠한 과목은 교수님께서 바로 수강인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는 안 해주시는데, 수강신청을 한 후 바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아라 입학허가서를 받고 나서 이걸 신청하려면, 거의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과목들은 다 자리가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수강신청 전 절차를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제가 관심 있는 전공 외 분야의 수업을 듣고자 했으나 수강신청이 불가능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UC Berkeley는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학교와 교양이 다릅니다. UC Berkeley에서는 우리가 듣는 교양 수업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전공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십 장씩 Course Material을 읽어가야 하고, 20페이지짜리 report 몇 개씩 써야 하며 계속 토론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경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 참여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하고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3. 기숙사신청

기숙사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UCB Campus에는 Residential housing, International House, Maximino Martinez Commons 등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Concurrent enrollment student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는 International House 뿐입니다.(Summer session은 세 곳 모두 살 수 있음) 기숙사가 큰 편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오는 모든 학생들을 다 받기 때문에 자리가 빨리 찹니다. International house(I-house)를 입사하기 위해서는 I-20나 다음 학기에 UCB에 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ihouse.berkeley.edu에서 무조건 먼저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늦게 신청해서 waitlist가 되었는데 waitlist에 있는 동안 housing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걸 기억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I-house는 한 학기에 약 6000불입니다. 물론 한 학기에 220~230끼 정도의 meal point를 주기는 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Campus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합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던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혹시 Housing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Facebook에 UCB Housing group이 있습니다. 이 Group은 UCB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그룹이니,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mail.berkeley.edu에 들어가서 @berkeley.edu 계정을 만드신 후에 저에게 연락주시면 그 그룹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I-House에 사는 것을 완전완전완전완전완전완전완전 추천합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오는 것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실 I-House에 살면서 정말 영어도 많이 늘었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친구들과 헤어질 때는 서로 울 정도로 많이 정이 들었는데, 언제 다시 이런 경험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I-House에 산 것을 매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House에서는 다양한 행사(학기 초에는 MT와 같은 Retreat, 매주 수요일에는 Cookie와 Tea를 Coffee hour, Pub에서 열리는 Party, 샌프란시스코에서 boat를 빌려서하는 Boat Party, 래프팅 등)도 많이 열리고, 기본적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1년을 계신 학생인데 학비가 너무 부담되시면, 첫 학기는 I-house에서 지내시고, 학교에 적응을 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 나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별로 친구를 사귀는 게 싫거나, 혼자 지내고 싶으시면 바깥에서 사는 게 더 편하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2-4. 준비물

가장 크게 준비할 것은, 의류, 침구류, 생활용품 등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시는 Berkeley는 날씨가 우리나라의 4~5월 혹은 10월 정도의 날씨입니다. 낮에는 1월이든 6월이든 매우 따뜻하지만 밤에는 꽤 쌀쌀합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고, 밤에는 가디건 혹은 두꺼운 후드를 걸치는 정도이고, 비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1월이 우기라고는 하는데, 그 때 이외에는 거의 비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3월에 몇 번 비가 와서 레인부츠를 샀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신고 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옷은 미국이 정말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앞에 Bancroft way가 있는데 거기에도 옷가게들이 몇 개 있고, 주말에 Outlet을 간다가나 San Francisco를 나가면 쇼핑할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옷을 많이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고, 한 1~2주 정도 입을 것만 사오시고, 그 이후에는 쇼핑해서 입으시는 게 짱도 줄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류를 가지고 왔는데, I-house에는 한 학기동안 Rental을 해줘서 그렇게 사용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Berkeley 근처 Emeryville에 가면 IKEA가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용품은 자기 나름인데, 우선 여기는 110V를 쓰기 때문에, 220V짜리를 사용하시려면 Converter를 사오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기는 전격 때문에 220V짜리는 엄청 약하니, 그냥 여기 와서 사는 게 낫습니다.) 저는 한국에 설물점 같은 곳에서 한 개에 500원에 샀는데 여기서 사려고 하니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샴푸나 린스, 바디샤워, 세제 같은 것은 Safeway나 Target에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고(Walgreen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님. 한국과 비슷한 가격), 그렇게 좋은 걸 안 써도 되는 학생은 Telegraph Avenue에 있는 Japan Daiso에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 만약 유명 브랜드를 쓰는 학생이라면, 한국보다는 미국에 유명브랜드가 더 싸니 여기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앞 Bancroft에 Clinique가 있고, SF에 가면 Sephora도 있고, 그냥 Walgreen이나 Safeway에서도 메이블린 같은 것은 파니 굳이 많이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자기 것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하지 않는데, 한 번 여드름용 로션을 잘못 썼다가 발진이 생겨서 한 동안 얼굴과 상체가 다 빨강게 일어나서 병원신세를 진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름 모르는 브랜드를 좋다고 마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ㅠㅠ)

3. 단기유학 생활

떨리는 마음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셨나요? SFO에서 UCB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BART를 타고 SFO역에서 Downtown Berkeley역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8입니다. 그러나 Bart에 익숙하지 않고 Downtown Berkeley에서 숙소로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라 Extension office에서 보내주신 서류에 Airport Shuttle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공항에 도착한 뒤 전화하시면 20분 내로 데리러 오십니다. 저는 Bayporter를 이용했고 가격은 공항부터 I-House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팁 포함 \$38 드렸습니다. 혼자 오는 학생이라면 이 방법을 매우 추천하고, 친구가 데리러 오신다면 친구 따라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친구가 Berkeley에서 SFO까지 BART를 타고 가면 매우 멀어서 고생을 하니, 그냥 혼자 Shuttle을 타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Shuttle은 Van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소체계가 동 체계가 아니라 길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Shuttle을 부르는, 길을 물어보며 혼자 올 때든, 길 주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I-house는 워낙

Shuttle이 많이 와서 기사분이 아시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사신다면 길 주소를 알려주셔야 기사님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CB는 수업 1주일 전 OT를 합니다. Extension office에서 하는 큰 OT인데,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간이학생증에 쓰이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불안하시다면 참여를 하시고 아니면 Extension office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하셔서 따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3-1. 수업

이제 드디어 UCB 첫 수업이 시작합니다. UCB Campus(2550만m²)는 POSTECH Campus(200만m²)의 10배보다 큼니다. 처음에는 너무 넓어서 수업하는 Building을 찾는 것도 많이 힘드니, 꼭 Campus 지도를 들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래야 찾기 쉽고, 물어보더라도 사람들이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다보면 자기가 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넓다는 생각도 안 들고, 건물도 찾기 쉬울 것입니다.

UCB 수업은 스케줄에 나온 시간보다 Berkeley Time이라고 해서 항상 10분 늦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강의실 이동이며 간단한 용무를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식사시간이 없어서 수업시간에 배가 고프다면 먹을 것을 사셔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옆 자리에 앉은 학생이 냄새가 나는 셀러드를 당근과 함께 오독오독 씹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었는데, 그만큼 자유롭게 드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UCB의 수업은 크게 Lecture와 Discussion으로 나누어집니다. Lecture는 그냥 교수님의 수업이고, Discussion은 우리학교의 랩처럼 숙제를 풀어주거나 질문을 받거나 심화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학계열 수업은 출석체크를 하지 않습니다.(인문, 사회계열은 전자과에서 쓴다고 하는 리모콘이라고 하죠? 그것을 여기서는 I-clicker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질문을 하거나 참여도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출석체크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UCB 학생들도 출석체크를 안 하니 수업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Discussion 시간에는 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수업시간에 발표나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조교님이나 Classmate하고도 친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Office hour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께 질문도 하다 보면 교수님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Classmate들에게도 Exchange student이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 친구들과 공부도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1-1. MATH55 Discrete Mathematics(4 Units)

우리학교의 이산수학과 동일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4Unit인 만큼 수업량이 많습니다. 월수금 1시간 씩 Discussion, 화목 1시간 반씩 Lecture였는데, 제가 이번 교환학생을 하면서 가장 듣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들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매번 교수님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배울 때는 Kenneth Ribet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학생들의 이름을 물어봐주시고 Office hour에 가면 과자나 차를 챙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Office hour에 갔을 때는 질문을 하고 가려고 하니,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점심식사를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 혹시 교수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교수님과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Theorem도 있으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학부생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POSTECH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워하시면서 POSTECH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내년에도 POSTECH에 오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면 꼭 학교구경 시켜달라고 웃으며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말 학생들과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교수님이시니, 혹시 교수님의 수업에 관심이 있는 수학과 학생이라면 꼭 교수님 수업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업과 학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등학교 때 배운 부분이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1-2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보이나, 그렇게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A+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2011학년부터는 STC이니 우리학교에서 듣기 싫은 친구들은 UCB에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3-1-2. IEOR161 Operations research II (3 Units)

산경과 확률시스템분석 과목입니다. 월수 1시간 수업, 금 1시간 Discussion입니다. 저는 Ph.D가 가르쳤던 수업이라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은 UCB IEOR 3-4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인데, 앞에서 말한 MATH55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UCB 3-4학년이 듣는 수업들은 정말 분위기가 다르고 다들 열심히 하니 열심히 하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Midterm 2번, Final 1번이었고, 과제와 시험을 합쳐서 학점을 매깁니다.

3-1-3. IEOR165 Engineering Statistics, Quality Control, and Forecasting (3 Units)

아직 제가 이 과목은 교류학점인정을 받지 않아 모르겠지만, 산경과 공학기초통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만, 산경과 공학기초통계에 비해서는 로드가 너~~~~~무 많아서 공학기초통계로 바꾸기에는 매우 아까울 것 같습니다. 화목 1시간 반 수업, 금 1시간 Discussion입니다. 이 과목도 Ph.D가 가르쳤던 수업이었지만, 상당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Excel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배우고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Group Project를 완성하는 것이 한 학기동안 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목도 UCB IEOR 3-4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었고, IEOR161과 같이 듣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시험은 Midterm 2번, Final 대신 Group project였고, 과제와 시험을 합쳐서 학점을 매깁니다. 그런데 과제가 단순히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Excel로 Project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을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매주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3-1-4. MUSIC143 Gospel Choir (2 Units)

매주 1시간 파트별 연습, 3시간 단체 연습이 있는 가스펠 합창 수업입니다. 이 과목은 신청하고 난 뒤 오디션은 보게 됩니다. 학생 수의 제한이 있기는 한데 오디션에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디션은 교수님과 1:1로 보게 되며 간단한 지원동기를 물어보시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지, 내려가는 지 voice range test를 봅니다. 그 후에는 자기가 준비한 노래를 부르고, 다음은 즉석에서 악보를 주시면 악보를 보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가사만 적힌 종이를 주시고, 교수님이 그냥 목소리로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부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악보를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솔직히 너무 수업이 저녁이라서 귀찮기는 했지만,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음악을 즐기는 법도 알았고, 학교 콘서트홀에서 공연도 해보고, UCB 졸업식 때 노래를 부르는 좋은 경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학점을 채우기 위한 수업이라면 다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한국학생들이 학점을 채우러 왔다가 그냥 수업 도중에 빠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리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1-5. UGBA106 Marketing (3 Units) - Summer session

산경과 마케팅과 동일한 과목입니다. 우리학교 학생은 평소에 Haas Business school 과목을 들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학기에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은 지금 듣고 있는 종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름학기라 타 학교 학생들이 매우 많고 교수님도 UCB 정식 교수님은 아니시고, 다른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수업 내내 발표를 하는 수업이고 Group project와 Report가 있습니다.

3-1-6. PSYC140 Developmental Psychology (3 Units) - Summer session

이 수업은 우리학교와 동일한 수업이 없고, 한국어로는 '발달심리학' 수업인데,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몇 살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지, 언제 뭘 배울 수 있는 지 등등, 나중에 결혼 후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다른 학교 교수님이시긴 한데, 매우 친절하시고 Developmental Psychology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우리를 아이처럼(?) 부드럽게 다루어 주십니다. 중간 중간 Report가 있는데 질문과 주제가 숙제 같지 않게 매우 재밌고, 시험은 2번 보는데 오픈 북, Laptop 사용가능, 상의가능, 답 맞출 가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철저히 책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을 원하지 않으셔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하기 나쁩니다.

3-2. 수업 외

연구참여를 하는 학생의 경우는 연구참여를 할 것이고, 저는 연구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UCB는 GX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체육관이 잘 되어 있으며, 체육관을 등록할 시 Campus 내의 수영장 3개도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POSPLEX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UCB Regular 학생에 비해서는 비싸지만)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시면 꼭 등록하셔서 물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 것이나 기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I-house에 사는 친구들은 다이어트하기 최적의 환경이니,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국에서 다이어트 성공하고 가세요^^) 아무튼, 저는 그 외의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았고, 주말에는 항상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친구들과 나갔습니다. 갈 곳은 여행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Bancroft에 있는 YWCA의 연간 회원(\$20)으로 등록하면, English In A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한 명과 학생 1~4명 정도가 그룹이 되어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만나서 Conversation을 하는 것인데, 회원으로 등록하면 무료로 할 수 있고 영어를 배우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파트너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기도 함) 그 외에 학기 초에는 Sather gate 앞에 Club들이 많이 나와서 홍보를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외 활동을 할 때도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UCB는 동양인 학생비율이 40%가 넘을 정도이고, 그 중에 한국인 학생의 비율도 많습니다. 더욱이 한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오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처음 가면 언어나 생활이 힘들어서, 한국학생들과 지내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만 지내고, 한국어만 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국에 와서 생기는 외로움과 생활 속에서 언어 때문에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지만, 미국까지 와서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영어를 그렇게 써보겠으며, 외국인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을까요? 한국인 친구들과 사귀면 도움을 받아서 편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UCB에 와본 학교 선배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알려주시니,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3-3. 여행

미국을 온 길에 남는 시간에 여행도 많이 해야겠지요? 우선 학기 중 주말에 갈 수 있는 곳은 서부의 Seattle, LA, Las Vegas, San diego 정도입니다. 그 외에 주말에 갈 수 있는 곳은 Silicon Valley, Stanford University, Yosemite, Napa Valley, Sonoma Valley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다면 여행하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친구들 중에 차를 빌릴 수 있는 친구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편허증이 있다면 직접 Rent를 해서 가도 됩니다. 그 외의 New york, Boston, Washington DC, Florida 등등은 동부와 남부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약

7시간 정도 가야합니다. 그러므로 봄 학기에 오는 친구들은 Spring Break에 가거나, 가을학기에 오는 친구들은 학기가 다 끝나고 가면 될 것입니다.

쓰다 보니 할 이야기도 많아서 길어졌는데, 이 글을 읽고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yeawon0311@postech.ac.kr로 이메일 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UC Berkeley 뿐만 아니라 유학의 기회를 얻으신 모든 분들, 한국에 돌아갈 때 하나도 후회가 없을 만큼 알차게 보내고 가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